

“국내 최고의 응급의료체계 구축할 것”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시기에, 직원들 사이에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취임 직후 3~4개월 수익도 큰 폭으로 상승했구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1기 졸업생으로서는 원광대학교병원(이하 원대병원) 병원장 1호를 기록한 최두영 병원장(법명 덕준, 영등교당). 취임이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느꼈다는 말과 달리, 1년 반 동안 원대병원이 보여준 성과는 눈부시다. 적정의료관리실장, 기획정보실장, 진료처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준비된 인재로 성장해, 모교의 대학병원을 세계적인 병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를 만났다.



금연지원센터 운영 병원 지정·응급의료 헬기 배치 등 큰 성과 소아암 환자 위한 원누리 기금 조성... 병원 전체로 확산

▲ 취임 후 일 년 반, 눈부신 성과 이뤄
그가 병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메르스가 나라 전역을 휩쓸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어쩔 일
인지 크게 손해를 본 다른 병원들에 비해 원대병원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발전이었다. “방송사 홍보, 국책사업 등 뭐든지 기회만 있으면 도전을 했어요. 모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내 뒤에 부모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었죠.” 전북금연지원센터 운영 병원 지정, 권역의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에서 여섯 번째 응급의료 전용 헬기(이하 닥터헬기) 배치 사업 유치 등의 다양한 국책사업 유치뿐만 아니라, 운영 평가에 있어서도 감탄할 만한 성과를 나타낸 것.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1주기 운영사업 및 2주기 후속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전북금연지원센터도 보건복지부 국가

금연센터 평가에서 전국 유일의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전하니까 되더라고요.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의료구호를 위해 해외로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죠.”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등 각 나라의 의사들을 교류시키거나, 현지 병원 위탁경영 등 다양한 병원진출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최 병원장. “의료도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야죠. 성공에 개입하지 않고 도전을 하다보면, 그 속에 노하우가 축적되는 법이니까요.” 현재 원대병원이 호남에서 가장 역동적인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으로의 임기 내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싶어요.” 4년 연속 1등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권역의상센터,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닥터헬기까지 더해졌으니, 그의 바람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겠다.

▲ 원광대병원의 초심 제생의세
“사실 많은 병원들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런 분들을 차별하지 않죠.”
원불교 중립병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물으니, 단박에 나오는 대답은 ‘제생의세’다. 그렇기에 다른 병원들에서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꺼려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한 치의 주저함이 없다는 것. “병원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봉사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소아청소년과 교수이기도 한 그는 몇 십 년 전, ‘원누리’라는 이름으로 기금을 조성한 바도 있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뜻 있는 직원과 학생들을 모았던 것. 소아과에서 시작된 원누리가 이젠 병원 전체로 확산되었고,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외국인 환자나 영세한 환자들을 지원하는 후원회가 되었다고. “원대병원에서는 의료 불평등이 없다.”고 단언하는 최 병원장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러 있다. “저희는 의술로 병든 세상을 구원하지만, 꼭 그것에 국한되려고 하진 않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행사나 봉사에도 꼭 참여합니다.”

장으로서 모두를 포용하리라 쉽지 않을 터. 그렇기에 그는 화합과 소통을 거듭 강조한다.

“천오백 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천오백 개의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 더욱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죠. 구성원들의 양보를 늘 고맙게 생각해요.” 뭉치면 1등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간의 성과로 충분히 알게 되었으니, 서로 다독일 일만 남은 셈이다. 또한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환자들의 마음까지 살피고자 하는 그는, 스무 명의 친절코디네이터를 선발해서 병원의 친절문화를 확산해가고 있다.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이 세계적인 병원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무언가 하고자 도전하고 꿈을 가지면, 우리 세대에는 당장 평가가 없어도 미래 세대에서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푸근한 미소에 담긴 원대한 꿈이 그렇게 차곡차곡 펼쳐지고 있다.

▲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사실 직원만 천오백 명인 종합병원의 병원



제13회 익산 **천민송이** **축화축제**

백제왕도 익산으로 오세요~

10.28(금)~11.6(일) (10일간)
익산중앙체육공원